

2024. 1. 20.(토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1월 19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동행·매력
특별서울

SEOUL
M! SOUL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	자활지원과장	김경원	02-2133-7480
	자활지원팀장	기재일	02-2133-7489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4쪽

온기 나눔 현장에 잘 오셨습니다...쪽방촌 가득 채운 소상공인의 작지만 큰 나눔

- 경기 불황으로 인한 쪽방 주민 후원액 감소 추세에도 '23년 '온기창고' 개소 후 후원 물품 배분 30% 증가
- 세븐일레븐 경영주나눔봉사단, 쪽방 주민의 다양한 수요로 수급 어려워진 식료품·생활용품 약 900만 원 기부
- 서울역 쪽방상담소, 온기 나눔에 동참해 준 경영주 대표해 세븐일레븐 소공점에 '잘오셨습니다!' 감사 명패 전달

“큰 기업은 기업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나눔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.”
〈'온기창고' 후원기업 편의점 점주, A씨〉

“'온기창고'에 쪽방 주민이 필요로 하는 후원 물품을 가득 채워야 마음이 든든해요. 대부분은 특별한 때 한꺼번에 많이 후원하시는데, 작지만 이렇게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사장님들이 정말 소중해요.”
〈쪽방상담소 관계자, B 씨〉

- 장기화된 경기 불황 속에 쪽방 주민에게 전달된 후원액은 '21년 약 27억 원에서 '23년 약 20억 원으로 줄었으나 서울시가 '온기창고' 개소 후, 줄 이은 후원으로 주민들의 생활을 보듬을 수 있었다.
- 2023년 8월 문을 연 '온기창고' 1호점은 5개월간 814명의 등록 회원에게, 후원품 91,751점(약 2억 5천만 포인트)을 배분하였다. 이는 상반기 대비 약 30% 증가된 수치이다.

- ‘온기창고’ 1·2호점은 세븐일레븐의 월 1천만 원 상당의 물품 후원 외에 서울교통공사, 토스뱅크, 신한금융그룹 등 기업의 후원으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. 그러나 쪽방 주민들의 기대가 크고 수요가 다양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 확보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.
- 세븐일레븐 점주들의 자원봉사 모임인 ‘경영주나눔봉사단’은 지난 8월 초, 1천만 원을 후원했다. 이 자리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 수급이 어렵다는 쪽방상담소의 사정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생활용품, 식료품 등을 택배로 보내며 ‘온기 나눔’에 동참했다.
- 경영주들은 곰탕·즉석밥 등 식료품과 샴푸·비누·두루마리 휴지 등 생필품 1,281점(약 380만 원)을 70여 회에 걸쳐 온기를 전달했다. 특히 쪽방촌 인근 소공점 경영주는 작년 10월부터 16번에 걸쳐 도시락 1,260개(약 500만 원)를 쪽방 주민과 일대 노숙인들과 나눴다.
- 이에 서울역 쪽방상담소는 작년 12월 26일, 후원 가맹점들의 대표로 세븐일레븐 소공점을 방문해 ‘잘오셨습니다!’라는 문구가 담긴 감사 명패를 전달했다. 이날 전달식에는 불황의 어려움 속에서도,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웃인 쪽방 주민들과 온기를 나누고자 동참해 준 경영주들에게 감사의 마음도 함께 전해졌다.
- 유정례 세븐일레븐 경영주나눔봉사단 단장은 ‘주거가 불안정한 주민들을 돌보는 일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. 큰 기업은 기업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나눔

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.’라며, ‘앞으로도 경영주들이 모은 온기를 꼭 필요한 주민에게 전달하는 나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.’라고 말했다.

- 서울시는 앞으로도 ‘온기창고’를 후원 물품 배분이라는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‘온기 나눔’ 캠페인 동참과 같이 지역사회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여 주민들의 재활·자활사업으로도 영역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.

-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은 “‘온기창고’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‘온기 나눔’으로 따뜻하게 채워지고 있어 참 기쁘고 감사하다. 십시일반 채워지는 생필품들이 꼭 필요한 주민에게 전달되어,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기를 바란다.”라며 “서울시도 불황 속 더 어렵고 고된 생활을 하는 쪽방 주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펴보며 약자동행 특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
□ 참고 사진



감사 명패(잘오셨습니다)



감사 명패 전달식('23.12.26.)



'23년 12월 14일, 종로구 돈의동 '온기창고' 2호점을 찾아 쪽방 주민에게 나눔 방한용품을 살펴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



서울역 쪽방상담소 '온기창고' 1호점에서 원하는 물품 구입 후 퇴장하는 주민